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1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8년 7월 2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재벌적폐 청산! 산별교섭 쟁취! 가자! 양재동으로!



금속노조, 7월 13일 양재동 총파업 상경투쟁 결의

노조가 총파업 및 상경투쟁 지침을 결정했다. 7월 13일(금) 6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하고 전체 조합원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상경투쟁에 결합한다는 지침이다. 6월 25일 열린 지회장 결의대회에서도 전국의 지회장들이 모여 열띤 논의를 통해 7월 13일 총파업 상경투쟁을 최대한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배제, 현대차의 임금동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일방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정관계가 대화로 풀릴 여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은 “임금인상 불가, 하후상박 불가, 노사공동위 불가”를 부르짖으며 금속노조의 임단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재벌 독식으로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노동자의 삶은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데, 정권과 재벌은 여전히도 노동자 쥐어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올해 임단투 승리를 위해서, 산별교섭 쟁취를 위해서, 그리고 재벌개혁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현대기아차를 넘어서야 한다. 노조는 현대기아차를 핵심 적폐로 지목하고 올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양재동 상경투쟁, 임단투 판가름난다

전체 조합원들이 파업하고 서울로 상경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투쟁이 아니다. 각 지회마다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7월 13일 양재동 상경투쟁이 올해 임단투와 이후 산별교섭의 향방도 판가름낼 수 있다. 우리의 투쟁의지를 확실히 보인다면 현대기아차를 끌어내서 산별교섭을 진전시킬 수 있다. 그 힘으로 올해 임단투도 승리를 향해 갈 것이다.

7/4(수)~6(금) 쟁의행위 찬반투표 압도적으로 가결시키자!

금속노조가 6월 27일(수) 일괄 조정신청에 돌입했다. 지부도 노조 일정에 맞춰 일괄 조정신청에 들어갔다. 한온시스템지회가 조기교섭으로 쟁의권을 이미 확보한 가운데 교섭을 진행 중인 8개 사업장이 함께 조정신청에 들어갔다.

노조는 7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총파업 투쟁의 의지를 확인하는 첫 포문이자, 강력한 시작이 될 것이다. 압도적인 가결을 통해서 힘있게 총파업을 선포한다면 올해 투쟁이 강한 추진력을 얻어 나갈 수 있다. 총파업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와 압도적인 찬성을 바란다.

* 주요 일정 *

- ☐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7/3(화) 14:00 서울 금속노조
- ☐ 금속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7/4(수)~6(금) 각 지회 지정장소
- ☐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 및 반올림 농성 1,000일 삼성 파워의 날
7/4(수) 18:00 서울 삼성본관 앞